



참새의 잡념



송 정 훈 위원
서울제4중재부
변호사

朝聞道 夕死可矣(조문도 석사가의)

공자께서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자 말년에 도덕이 땅에 떨어진 노나라를 걱정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공자 사후 수많은 사람이 공자 말씀을 인생의 가르침으로 살아왔지만,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었다는 얘기를 저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아침에 도를 듣지 못하였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아침에 도를 들었으나 세상이 변해 아침에 들은 도가 저녁에는 도로 남아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儉以養德(검이양덕)

제갈공명은 계자서에서 ‘儉以養德(검이양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선비들은 혼인을 축하하면서 ‘多壽 多子 多福(다수 다자 다복)’을 기원하였습니다. 많이 낳고 적게 쓰는 것이 옳았었습니다.

“하루위해 낭비말고 백년위해 저축하자”

1979년 표어입니다. 1970년대에는 국가경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저축을 장려했었습니다.

“축복 속에 자녀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

1980년대 표어입니다. 1980년대까지 인구증가를 경제성상 저해요인으로 인식하고 산아를 제한했었습니다.

“소비침체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작금에 정부의 인식입니다.

정부는 내수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소비를 장려하고 있음에도 정작 소비자들이 경제상황인식이 바뀌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한민국 희망소리”

1994년 산아제한 정책이 폐지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장려 표어입니다. 저출산이 한국인을 멸종시킬 수 있다는 가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을 알게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기 전에 변하는 것을 알면 도를 들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덜 낳고 덜 쓰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제 자식들이 결혼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많이 낳고 많이 쓰는 것이 옳은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제 손자가 결혼할 때에는 많이 낳고 적게 쓰는 것이, 또는 적게 낳고 많이 쓰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노자께서 지금 한국에 사신다면 무엇이랴 말씀하실지, 아직 산아제한정책이 남아 있는 중국에 사신다면 무엇이랴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노자께서도 모르실 겁니다.

道(도)

可道(가도)

非常道(비상도)